

TV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오늘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7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주홍글씨>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공사창립기획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아침연속극 <장미의 전쟁>
30 KBS 뉴스	00 희망릴레이 20 아침드라마 <사랑하길 잘했어>	9 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20 좋은아침
00 무엇보다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찬 세상	50 여유만만	10	40 SBS 뉴스
00 행복한 교실 55 바른길 교우말	00 공영방송 특선 다큐시리즈 <BBC 아틀란티스>	11 00 수목미니시리즈 <마이프린세스>(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뉴스12	00 수목드라마 <프리티즌트>(재)	12 00 MBC 뉴스 25 자유통시(희망프로젝트) 15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 <육아의 불꽃>(재)	00 SBS 12뉴스 30 건강클리닉
00 KBS 걸작선 <결혼해주세요>(재)		1 15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 <육아의 불꽃>(재)	30 한국의 숲
00 KBS 뉴스 10 공사창립 특별생방송 <시청자와 함께 생명을 나눕시다>	10 금요일기획 (재)	2 15 경제 매거진(재)	00 SBS 뉴스 10 드라마스페셜 <무명2>
	00 KBS 뉴스타임 05 호기심 대장 배악이(재) 35 후투스 잃어버린 숲(재)	3 10 키즈사이언스	00 세상발전 큐레카(재)
00 KBS 오늘의 경제 10 공사창립 특별생방송 <시청자와 함께 나눕시다 2부>	00 TV 유치원 30 최창희체 믹스마스터	4 00 MBC 뉴스 10 뽀뽀뽀 아이즈야 40 행복이 음악대	00 레츠고 MBA 30 꾸러기 탐구생활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 지오 그래픽	00 사람의 가족 30 성공예감	5 10 방방곡곡 해피드레인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스티븐 웹컴투 가요리(재)
00 6시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05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	6 00 6시 뉴스매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30 생방송! KBC 투데이
00 KBS 뉴스네트워크 30 생방송 시사매거진 <프리즘>	10 생생정보통	7 45 일일시트콤 <동양 내사랑>	10 시사터치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호박꽃 순정>
25 일일연속극 <웃어라 동해야>	40 KBS 뉴스타임(광주전남) 50 공사창립특집 비터민	8 15 일일연속극 <남자를 믿었네>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뉴스 50 생활의 달인
00 KBS 뉴스 9	50 KBS 뉴스타임 55 수목드라마 <가시나무새>	9 55 수목미니시리즈 <로열 패밀리>	55 드라마스페셜 <싸인>
00 공사창립특집 SBS 대기행 <푸른 지구의 마지막 유산 콩고 제1편>		10	
00 KBS 뉴스라인 40 공사창립특집 네트워크 대기행 <사리진 언어 잊혀진 세계 2편>	15 추적 60분	11 05 황금어장 <동방신기>	15 테마스페셜
35 KBS 뉴스 45 KBS 특선 아시아 <중국 광둥의 별난 역사와 말>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TV특감	12 20 MBC 뉴스 24 35 웃고 또 웃고	10 나이트라인 30 TV특감 행복플러스 <사해정 2강>

지상파 주말 예능 잇단 개편

'1박 2일' 새 멤버 영입·'일밤' 오디션 서바이벌 도입

일요일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조직 정비에 나서면서 판도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선두주자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은 새 멤버를 영입하며 6인 체제로 복귀했고 MBC '일밤'은 대대적인 코너 개편을 통해 추격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일요일 예능 최강자 '1박2일'은 최근 배우 엄태웅을 MC몽의 공백을 메울 제6의 멤버로 확정했다. 지난달 25일 첫 녹화에 참여한 엄태웅은 겨울바다에 맨몸 입수도 불사하는 열의를 보였다. 엄태웅이 정식 멤버로 합류한 방송본은 오는 6일 방송될 예정이다. '1박2일'은 작년 9월 MC몽이 병역기피 혐의로 하차한 후 5인 체제로 꾸려왔다. 그러나 제6의 멤버 영입 작업에 올랐던 연예인들이 잇따라 출연을 고사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핵심 멤버인 이승기마저 하차설이 불거지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최근 이승기가 잔류 의사를 확실하게 하고 여러 차례 출연을 고사했던 엄태웅이 합류를 결정하면서 '1박2일'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오랫동안 부진에 시달려온 MBC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는 프로그램 명을 '일밤'으로 변경하고 대대적인 코너 개편을 실시했다. 기존 '오늘을 즐겨라'와 '뜨거운 형제들'을 동시에 폐지하고 새 코너 '서바이벌 나는 가수다'와 '신입사원'을 신설, 6일 첫 방송한다. 신설코너 모두 최근 열풍인 오디션 서바이벌 체제를 도입했다. '나는 가수다'는 7명의 가수가 자신의 노래가 아닌 다양한 장르의 곡을 부르며 우열을 겨루는 방식으로, 일반인 심사단이 가수들의 노래 실력을 평가한다.



'신입사원'은 신입 아나운서를 뽑는 공개채용 오디션으로, 연령과 학력 등 참가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아 1차 접수에서 5000명이 넘는 지원자를 끌어들였다.

지난해 7월 방송을 시작한 '런닝맨'은 특정 장소를 배경으로 한 게임 대결이라는 독특한 콘셉트에 국민 MC 유재석의 기용에도 한동안 '1박2일'과 '일밤'에 밀리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시청률이 상승세를 타면서 최근 시청률 12%를 넘었다. '런닝맨'의 상승세는 유재석을 비롯해 김중권, 개리, 송지호, 송중기 등 고정 멤버들의 캐릭터가 자리잡은 데다 경쟁 프로그램이 주춤한 사이 시청자를 끌어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제7회 시구정장배

강력한 반발

최강부 결승전 4보(46~59)

白 심재욱 6단 黑 권세혁 6단

이제는 흑 세력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승부가 되고 있는 장면인데, 흑 53으로 어깨를 짚어간 수가 좋은 감각이었다. 이 수는 '참고도'의 백 1로 받아주기를 기대하고 흑 2로 보배를 하려는 것이다. 흑 6가 지 된다면 우측에 엄청난 흑 세력이 완성돼 백의 고전이 예상된다. 심재욱 6단은 승부처임을 절감하고 백 54로 강력히 반발하고 권세혁 6단은 흑 59로 받아치는 등 격랑에 휩싸이고 있는 국면이다.

흑 49의 말뚝박기에 백 50으로 찢어어는 것도 실리파인 심재욱이 아니면 두기 힘든 곳이다. 이 수로는 '가'정도에 두어 흑 세력을 견제해야할 것 같은데도 나만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다.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일(음 1월 28일 丙辰)

子	36년생 귀한사람이 똑마르게 찾으니 준비하고 있으라. 48년생 남의 입에 붙어안다. 60년생 내 것 주고 욕 먹는 수도 있다. 72년생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84년생 달빛으로는 과잉이 되지 않으니 적절한 방법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 02.31
丑	37년생 험악하지 않은 어린이 만날 수도. 49년생 많이 얻으려거든 많이 베풀어라. 61년생 모든 일에 신중할 있어야 하나 오늘은 과감하게 하라. 73년생 맑은 조용하나 집안이 시끄러우니 살펴라. 85년생 발전은 약속되고 시작 되었다. 행운의 숫자 : 04.16
寅	38년생 밤손님이 보이니 툄단속을 잘하라. 50년생 변화는 새로운 일을 만든다. 62년생 불만속엔 하루지만 혼자서 자위하라. 74년생 상할 따라 길흉이 바뀌니 심사숙고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0.33
卯	39년생 세치의 혀가 잘못하면 벌인까지 가리니 신중할 하루를 보내라. 51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63년생 시비 구설이 있으니 조심해야 하라. 75년생 실재는 과욕에서 출발하니 착실하게 진행하면 성공한다. 행운의 숫자 : 15.41
辰	40년생 오늘은 마음껏 웃는 날이다. 52년생 잘못된 말 한마디가 오해가 된다. 64년생 전쟁보다는 협상으로 처리하면 좋은 결과 얻으리라. 76년생 직장과 가정에 즐거운 일이 생길 수다. 행운의 숫자 : 19.42
巳	41년생 친구끼리 다투니 생방이 손실이다. 53년생 힘이 든 하루였으니 휴식을 취하라. 65년생 가끔은 싸우는 것이 부부사이지만 지나치면 큰 일 난다. 77년생 과신은 손해를 부른다. 둘다라도 두드려라 건너라. 행운의 숫자 : 22.43
午	42년생 가정에 대고 예상되니 하루 종일 살펴라. 54년생 길은 모든 것이 참치되거나 실속은 있다. 66년생 남의 말을 듣지 마라. 손재가 따른다. 78년생 단호한 결단을 내리라. 좋은 판단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2.25
未	43년생 대운으로 향하나 그릇이 작구나. 55년생 대화 많으면 오해는 없으리라. 67년생 모든 일이 편안하다. 79년생 뜻대로 진행되나 이득은 미지수다. 행운의 숫자 : 13.43
申	44년생 모든 일이 지연되나 좋은 쪽으로 향한다. 56년생 믿었던 협조자가 도움이 주지만 가약은 없다. 68년생 배우자의 불륜사가 예상되니 잘 보살피야 하라. 80년생 부인의 주변에 좋은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8.30
酉	45년생 불륜자가 갑자기 나타나니 행동에 신중해야 하라. 57년생 새로운 일은 활발한 일터가 되니 재물이 생길 수다. 69년생 손실은 투자가 되리니 너무 걱정을 하지마라. 81년생 신구문서 잘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20.27
戌	46년생 엉뚱하게 큰일을 벌이면 먹을 밥도 못 찾는다. 58년생 올해는 가정에서 인내해야 하라. 70년생 잘 할 때를 조심하라. 예기치 않은 복병이 나타난다. 82년생 잘못된 문서로 눈물이 난다. 행운의 숫자 : 23.39
亥	47년생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라. 대고는 없다. 59년생 친인척의 조언으로 도움을 얻게 되니 잘 들어 보라. 71년생 할나가는 일도 다시 한번 살펴보라. 83년생 가까운 사람간의 큰 싸움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4.32

www.cafe.daum.net/sajou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오하오우 니혼고	니하오 쑹구위	한자 이야기
<h3>How is the proposal coming along</h3> <p>그 제안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p> <p>A : How is the proposal coming along? B : It should be okay. John has it right now. A : Have you heard anything since then? B : No, let's check with him to see how it is. A : That's fine. But you should have already done it. B : Okay, I understand.</p> <p>A : 그 제안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B : 잘 될 겁니다. 존이 지금 그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A : 그 이후로 점검을 해 보셨나요? B : 아닙니다. 어떤 상태인지 그 사람한테 물어보죠. A : 좋아요. 하지만 이미 그렇게 하셨어야 합니다. B : 네, 알겠습니다.</p> <p>* come along = 진행되다 * 점심을 먹으러 갈 것인지 어쨌든 언제에 물어 봅시다. = Let's check with John to see if he wants to go to lunch.</p>	<h3>噂をすれば影が差すね。</h3> <p>호랑이도 제 말하면 오네</p> <p>A : 大きい声で話さない方がいいよ。 B : 大丈夫だよ。本人いないんだから。 A : あ、あの入現れた。 B : やっぱり 噂をすれば影が差すね。</p> <p>A : 큰소리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B : 괜찮아. 본인 없으니까. A : 아, 그 사람 나타났어. B : 역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오네.</p> <p>[단어정리] 大笑 웃는다 現れる 나타나다 噂がする 소문이 나다 影が差す 그림자가 비치다 やっぱり 역시 (여성은やはり를 사용)</p>	<h3>高抬贵手 gāo tái guì shǒu</h3> <p>귀하의 손을 높이 들어주신다면</p> <p>옛날 유랑극단식으로 천막을 치고 연극을 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출입구에 건장한 남자 서너명이 지키고 서서 입장료를 받았는데 꼬맹이들이 돈은 없고 연극은 보고 싶어서 가로 막고 서있는 남자들에게 애원을 합니다. "팔을 좀 더 높게 들어주시면 (请抬高胳膊 qǐng tái gāo gé bo) 제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로 공손하게 부탁하며 그냥 들어갈 수 있기를 사정합니다. "팔을 높게 들어주라(抬高胳膊)는 표현이 훗날 문장가들에 의해 좀 더 멋진 표현인 高抬贵手로 쓰이고 되고, '관대해 봐 주다' 혹은 '용서를 바라다'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p>	<h3>出师表(출사표)</h3> <p>날출, 스승사, 결표</p> <p>출사표(出師表)는 출병할 때에 그 뜻을 적어서 임금께 올리던 글로 중국 촉한의 승상 제갈량이 출병하면서 후왕에게 적어 올린 글이다.</p> <p>출사표는 원래 신하가 적을 정벌하러 떠나기 전에 황제나 왕에게 올린 표문(表文)이다. 이 중에서도 중국 삼국시대 촉한(蜀漢)의 승상 제갈량(諸葛亮)의 것이 가장 유명하다. 제갈량의 출사표로는 <진출사표>와 <후출사표>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이 글을 읽고 울지 않았다는 이가 없다 할 정도로 빼어난 문장과 나라에 대한 애국심, 그리고 그 당시의 죽은 선제(先帝) 유비(劉備)에 대한 충성심이 담겨 있어 오늘날까지 크게 칭송받고 있다.</p> <p>[출전] 『삼국지(三國志)』(제갈량전(諸葛亮傳)), 『문선(文選)』 ※ 급수 : 한자능력검정 7급 준4급 6급</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p>	<p><이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제공> http://www.kjasuka.co.kr ☎ 232-1503</p>	<p><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대능출판> www.daeneungedu.com</p>